



환경 보호의 파수꾼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펼치는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대표 임기상 씨

10년 이상 탈 수 있는 자동차를 3~4년 타다가 중고차 시장에 헐값에 팔고 새차로 바꿔 타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그러진 자동차 문화다. 자동차는 운전자가 애정을 갖고 관리만 잘 하면 10년 이상 충분히 탈 수 있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펼치는 임기상 씨가 귀띔하는 자동차 장수 10계명을 소개한다.

■글/오승건(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국)

“차에 애정을 갖고 관리만 잘 하면 우리 나라 승용차도 10년 이상 탈 수 있습니다. 국산 승용차의 수명이 짧은 것은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의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소모성 부품을 갈아줘야 하는데 이것을 고장난 것으로 잘못 알고 새차를 구입합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 운동 연합을 이끌고 있는 임기상 공동 대표는 자동차는 보통 40만km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영업용 택시의 주행 거리를 따져보면 충분히 납득이 된다. 영업용 택시의 사업 연한이 6년, 주행거리는 보통 40만~50만km이다. 승용차임을 감안해 1년에 4만~5만km를 운행하더라도 10년은 충분히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기상 씨가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을 받기 전부터.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니다가 3~4년 지나면 타고 다니던 차를 팔고 새차로 교체하는 것을 보고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임씨는 사고 난 차가 아니면 몇 년 지난 중고차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3년 지나면 소모성 부품을 갈아줘야 하는데 이것을 고장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 나라 운전자들은 엔진 오일 교환 등 기본적인 정비도 하지 못해 정비 업체에 맡길 정도로 자동차에 무관심하다. 애정을 갖고 차를

관리하면 10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를 자주 교체합니다. 지금은 1년 정도 연장됐지만 IMF 전에 우리 나라의 자동차 교체 주기는 3년4개월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의 교체 주기도 미국 7년10개월, 프랑스 8년, 일본 9년5개월입니다. 충분히 탈 수 있는 차를 몇 년 지났다고 해서 중고로 팔고 새차를 사는 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는
성능·연비·경제성을 따져야**

우리 나라 자동차 문화의 후진성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맹목적인 새차 선호, 소형차 및 고령차 경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폐차 주기(한국 8.1년, 미국 16.2년, 프랑스 15년) 등이 대표적인 후진성이다. 자동차를 살 때는 성능·연비

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부나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 크고 비싼 차를 선호한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승용차의 관리 요령은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 일상 점검을 생활화해 고장이 난 후에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차가 출고될 때 함께 주는 매뉴얼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1만km,

2만km, 3만km 등 일정하게 주행한 후에 교환해야 할 부품은 제때 교환해 주면 수명이 길어진다.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지 않으면 작은 고장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큰 사고로 나타난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도 급출발·급가속을 자제하고 주행속도를 준수하는 등 올바른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1천만대가 넘는 시점에 10년 타기 운동을 펼치려던 임씨는



▲관심을 가지고 승용차를 관리하면 10년 이상은 쉽게 탈 수 있다. 임기상 씨는 10년이 넘는 차를 아무 문제없이 타고 다닌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 운동 연합에서는 그 동안 '경차, 자가 정비 너무 힘들다' '스페어 타이어 너무 무겁다' '워셔액 검사' 등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98년 1월에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 운동 연합'을 창립, 현재 회원이 3천여명에 이른다. 자동차문화신문·차계부·자동차세와 관련된 테이프 등을 만들어 회원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 운동 연합((02)633-4177)에서는 그 동안 '경차, 자가 정비 너무 힘들다' '스페어 타이어 너무 무겁다' 등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1년 된 새차나 재산 가치가 없는 10년 된 차나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았다.

자동차 장수 10계명

10년 이상 탈 수 있는 자동차 장수 10계명을 소개한다.

1. 소모품은 제때 교환한다

자동차의 소모품 교환 주기를 넘기면 잔 고장의 원인이 돼 차의 수명이 단축된다. 엔진 오일은 주행 환경을 고려해 5천~1만km 주기로 교환해 준다. 자동 변속기 차량은 4만km마다 변속기 오일을 교환하고 수명이 비슷한 배터리·브레이크·클러치 오일(수동 기어)은 한데 묶어 교환하면 편리하다. 타이밍 벨트는 6만km, 점화 플러그는 2만km마다 바꾼다.

2. 새차 때 길을 잘 들인다

처음 1천km가 매우 중요하다. 이 기간중 급출발·급제동을 삼가고 엔진이 3천RPM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를 길



98년 1월에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 운동 연합'이 창립돼 현재 회원이 3천여명에 이른다. 자동차문화신문·차계부·자동차 10년 타기 스티커·자동차세와 관련된 테이프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들인다면 처음부터 고속으로 무리하게 달리는 것은 잘못이다.

3. 경제 속도로 알뜰 운전을 한다

기름을 아끼는 운전 방법이 곧 자동차를 오래 쓰는 비결이다. 권장 속도는 80~100km. 급가속·급출발을 삼간다. 불필요한 짐은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히 맞춰야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4. 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회전 반경·등판 능력·최소 속도 등 제원표상의 신상 명세는 물론 차의 구조에 대한 지식도 갖춘다.

5. 정기 점검은 차의 정기 진단이다

사람들이 1년에 한번 건강 진단을 받듯이 차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잔병을 방

치하면 합병증이 생기는 것처럼 잔 고장을 방치하면 큰 고장을 부른다.

6. 출발 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

출발 전 3분이 3년을 좌우한다. 차의 이상 유무를 알려주는 경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출발하기 전에 계기판만 살펴도 고장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램프류·타코미터·워셔량을 살피고 쓸데없는 공회전은 삼간다.

7. 피부 관리에 신경 쓴다

피부가 고와야 미인 대접을 받듯이 자동차도 사람의 피부에 해당하는 겉면을 잘 관리해야 젊음을 지킬 수 있다. 접촉 사고 등으로 칠한 부분이 벗겨지면 녹이 생기므로 부식 방지제를 뿌리고 페인트를 칠해야 오래 간다.

8. 너무 쉬면 성능이 녹슨다

기름값이 부담돼 차가 있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세위 두는 운전자도 있다. 차를 너무 쉬게 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일주일에 두 번, 5~10분씩 시동을 걸면 성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9. 계절병에 조심한다

자동차도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 여름·겨울에는 엔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추워지기 전에는 오일·부동액 등을 점검한다.

10. 사고 난 차는 단명한다

사고가 한번 나면 차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알뜰 주부가 가계부를 적듯이 알뜰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차계부를 적어야 차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 (스)